

# 독일 학교와 '학습공동체' 를 말하다

### 도교육청, 도내 혁신+학교 4교와 교육과정 교류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혁신학교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올해도 독일 혁신학교인 빈터후데 교사 2명이 우리 지역 혁신학교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독일 혁신학교(Reformschule)와 전북 혁신+학교의 교사교류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남원초등학교, 회현초등학교, 회현중학교, 전주중앙초등학교 등이 진행 중이다.

빈터후데 학교는 독일 함부르크 시에 있는 초중고통합학교로 남원초, 회현중과 2015년부터 교류 중이다. 올해 1월에 남원초, 회현중 교사 4명이 빈터후데 학교를 2주간 방문한 후 이번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빈터후데 학교 교사 2명이 전북 혁신+학교를 방문한다. 독일 교사들은 남원초, 회현초, 회현중학교와 전주중앙초등학교에서 수업참관, 문화수업, 교사 및 학부모 간담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빈터후데 학교는 0~4학년, 5~7학년, 8~10학년, 11~13학년을 통합하여 팀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학생의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의 공동 협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독일 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학교이다.

특히 이번 혁신교육 국제교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에 함께 참여해 군산, 남원 등에서 지역의 교사들과 독일의 혁신교

육 및 독일 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혁신교육과정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앞으로 학생 교류까지 국제교류를 확대해 양국의 교육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독일 괴팅겐 학교도 우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들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혁신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전북 혁신교육의 성숙과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기숙형 집중교육으로 취업문 '활짝'

###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9명 최종 합격 보험 관련 전공 설치 대학 중 23년 연속 합격률 1위

전주대학교 금융보험과는 최근 발표한 제42회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본교 손해사정사반 민중홍, 이호찬 학생 등 9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전국에 보험 관련 전공이 설치된 10여 개 대학 중 23년 연속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기숙형 집중교육과 교수·학생, 선배·후배 멘토링 등의 학습 전략이 높은 합격

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법률상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직위 세 명 중 한 명은 이 자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격을 취득하면 삼성, 현대, DB 등 대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취업할 수 있으며, 매년 응시생도 늘고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대체 주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에서는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공사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동여지도 목판 인출 체험', '사군자 상자 만들기', '선비의 친구-문방사우와 사군자', '두루두루 통달한 유화자-석정 이정직 알아보기' 등으로 어린이들이 조선 선비에 대해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선비문화 브랜드 사업 추진과 연계해 마련했다.

'대동여지도 목판 인출 체험'은 우리나라의 대표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직접 인쇄해보면서 지도 제작 원리와 대동여지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옛 지도의 특징과 대동여지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사군자 상자 만들기'와 '선비의 친구-문방사우와 사군자'에서는 선비의 필수품이었던 붓, 종이, 먹, 베풀과 선비의 친구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에 대해 알아보고 색칠을 하면서 선비 정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두루 통달한 유화자-석정 이정직 알아보기'는 특별전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끈다-석정 이정직'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특별전을 관람한 뒤 선비정신과 전북의 대표 인물인 이정직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 외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어린이 도서를 비치해 두어 어린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존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인 '책 놀이터'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주 토요일 10시~17시에 '열린공간 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박물관 누리집 혹은 유선으로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 및 전화(063-220-1016)로 문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한스타일연구소, 16일부터 릴레이 특강 마련

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몸담고 있는 공간, 평생 만들어진 공간 속에 반영돼 있다.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공간의 의미를 인문학과 융합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릴레이 특강이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 한스타일연구소와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사)호남사회 연구회, 전북건축사협회는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북대 농생대 분관 302호와 박물관 강당 등에서 인문학 특강 '인문학과 건축의 만남-집이 사람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30일에는 공간디자이너 '좋아하고 있는 곳에 살고 싶어요'의 최고요 저자가, 11월 6일에는 조재원 공일스튜디오 대표가 각각 특강을 맡는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과재환 건축그룹 간 대표가, 11월 20일에는 이남호 교수(전 전북대 총장), 그리고 마지막인 11월 27일에는 '기쁨의 건축' 저자인 문훈 문훈발전소장이 각각 특강을 펼친다.

전북대 한스타일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나름의 '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학생들, 세계 음식창의도시 현장 체험한다... 대표 셰프단과 해외 현장교육 위한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대표 셰프단과 해외 현장맞춤형 실무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19년 전주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초청 '쿠키키펀서티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멕시코 엔세나다와 미국 샌 안토니오, 스웨덴 외스터순드, 중국 순더 지역을 대표하는 셰프들과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해외 외식창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위한 유대 강화에 전북대와 음식창의도시 셰프들이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LINC+사업단 고영호 단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과 음식창의도시 초청 셰프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전 10시 30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셰프들은 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위한 전략 공유 및 음식창의도시의 식문화 소개 등을 주제로 한 특강도



전북대학교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대표 셰프단과 해외 현장맞춤형 실무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음식창의도시 초청 셰프들은 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위한 전략 공유 및 음식창의도시의 식문화 소개 등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했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음식을 통해 한 나라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우리 학생들의 직·간접적

인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식창의도시의 여러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박문제관리센터, 서곡중 학생 대상 캠페인 진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이하 전북센터)는 10일 전주 서곡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연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전북센터는 ▲도박문제 OX퀴즈 풀기 ▲1336과 넷라인 정보 제공 ▲도박문제 선별 검사 ▲도박문제 현장상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제공했다.

오남경 센터장은 "도박을 시작하는 진입시기가 이룰수록 성인이 된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조기개입에 주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북지역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기관이다. 도박문제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국번 없이 1336을 통한 전화상담과 온라인 넷라인(<http://netline.kcgp.or.kr>) 사이트를 통해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제27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 공연

10월 12일(토) 오후 3~4시 · 5~6시

10월 13일(일) 오후 1~2시 · 3~4시 · 5~6시

**남원 사랑의 광장**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